

치솟는 과일값에 '한숨' 나오는 설

사과 전년비 96%·배 66%↑...정부, 물량 공급·수입과일 관세 면제도 유통가, 과일 세트에 샤인머스켓 끼워 팔기...축산물값 전년보다 하락

올해 설 연휴를 3주 앞두고 설 선물로 각광받는 과일과 소고기를 찾는 소비자가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부터 천정부지로 오른 사과와 배 등 과일값은 강세를 보이고 있어 설 성수기에도 비싼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기 품목인 소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은 비교적 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우려가 있어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1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설 선물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과, 배의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크게 뛰었다.

지난 19일 기준 사과(후지·상품)의 평균 도매가격은 10kg 당 8만8880원으로 전년(4만5380원) 대비 95.9% 올랐고, 평년(4만9556원)에 견줘서도 79.4% 상승했다.

또다른 인기 품목인 배(신고·상품)는 15kg 당 7

만7740원으로 전년(4만6780원)과 평년(5만3251원) 대비 각각 66.2%, 46.0% 올랐다.

전반적인 과일값 폭등의 원인은 지난해 생육기에 찾아온 이상기후로 인한 질병 등이 꼽힌다. 사과·배 등 국산과일들이 작황부진을 겪으면서 소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산과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사과와 배의 계약재배물량을 시장에 내놓고, 유통업계에는 비교적 저렴한 샤인머스켓, 감귤 등이 담긴 과일 선물세트를 출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 국산과일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바나나·망고 등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설 성수품 중 단일품목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소고기를 포함한 축산물은 전년보다 싼 가격이 형성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자료에 따르면

한우고기 도매가는 지난 19일 기준 1kg 당 1만4768원으로 전년(1만 5442원) 설 성수기 대비 4.4% 낮았다.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1kg 당 5121원으로 전년(5454원) 보다 6.1% 하락했고, 계란(특란) 도매가는 한 판(30구)에 5479원으로 전년 대비 5.6% 떨어졌다.

축산물 중 가장 가격하락폭이 컸던 닭고기 도매가는 1kg당 2755원으로 전년 동기와 전년 설 성수기 가격에 견줘 각각 13.7%, 28.1% 하락했다.

다만, 전국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산됨에 따라 닭고기와 계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수급 불안 품목인 닭고기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광주·파주·창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된 파주·영덕 등에서는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질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외에도 정부는 사과, 소고기 등 성수품 10개 품목의 공급량을 평소보다 1.6배 수준으로 늘리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840억을 투입할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사과야 정말 미안해, 사과할게

지난해 작황 부진에 가격 치솟아...정부 수입 고려에 농민들 반발

사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국내 대표 과일로 국민의 건강과 입맛을 책임지는 중요한 먹거리 중 하나다. 그런 사과가 가격이 치솟으면서 수입을 하느니 마느니 이해 당사자 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과 가격이 이렇게 된 것은 냉해와 장마, 폭염 피해에 병충해까지 들었던 탓에 지난해 생산량이 전년보다 30% 줄었기 때문이다.

1년 새 두 배 오른 사과 가격이 다른 과일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값비싼 사과와 배 대신 감귤에 수요가 몰리면서 감귤 소매가격도 1년 전보다 30% 올랐다.

급기야 정부 당국은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 수입까지 고려하며 미국, 뉴질랜드 등과 수입 절차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과 가격이 폭등하고 올해도 작황 전망이 불투명해 지자체 공여책으로 꺼낸 카드로 풀이된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에 따라 사과 수입이 금지돼 있다. 수입 금지 이유로 공색한데 외국산 사과를 수입하면 국내에 병해충이 유입된다는 이유에서다. 바나나·키위·포도 등 다른 과일은 수입해도 문제가 없는데, 사과는 병해충 유입이 우려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조금 약해 보인다.

정부가 외국산 사과 수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과재배 농민단체와 과수농협 연합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과수농협 연합회와 한국사과연합회는 '정부의 사과 수입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는 규탄 성명까지 발표하고 나섰다.

사과재배 농민단체 등은 "일시적인 생산감소로 인한 수급 불안을 단기 처방인 수입으로 의존하지 말고 식량 작물이나 축산업에 대한 재해 대책에 상응한 재해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과수농가에도 희망을 주기 바란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사과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에 공감한다. 사과 재배면적은 지난해 기준 2만4687ha로 과일 재배 면적 가운데 가장 넓고, 지역적으로도 남부지방에서 강원도까지 농가가 분포해 있는 만큼 사과 수입으로 인한 농가의 타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과일과 달리 저장성이 좋은 과일이라는 점도 정부가 사과 수입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인데,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수입 사과가 싼값에 들어온다면 시장을 잠식할 염려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수입 금지 논리는 국가 간 통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짙고 소비자가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고를 수 있게 하는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질 높은 사과 재배로 농가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농가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무엇이 재배 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하게 할 묘책인가 다각도로 논의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가격이 치솟아 팔리지 않고, 수요를 맞추지 못해 수입한다는 사실이 한편으로 이해되지만, 사과와 소고기 수입에서 경험했듯이 한 번 연 개방의 문을 쉽게 닫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bigkim@kwangju.co.kr

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 농어촌ESG실천인정기업 선정

효성티앤씨 해수부장관·효성첨단소재 산업부장관 표창

효성티앤씨와 효성첨단소재는 지난 18일 열린 '2023년 농어촌ESG대상 시상식'에서 농어촌 ESG실천인정제도 인정기업으로 선정돼 대·중소기업·농어촌협력재단으로부터 인정패를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유공자 포상 부문에서 해수부장관 표창에 (주)효성 박종호 PL이, 산업부장관 표창에 효성첨단소재주 유영민 PM이 각각 선정됐다.

대·중소기업·농어촌협력재단은 매년 농어촌과 상생협력활동을 우수하게 추진해온 기업과 기관을 '농어촌ESG실천인정기업'으로 선정해오고 있다.

효성그룹은 바다 속 탄소저감을 위해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잡피소 보전 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를 흡수하는 대표적인 블루카본인 잡피는 해양생태계에 의해 지정된 해양보호생물이다.

효성티앤씨는 또 전남도, 부산시, 등 지자체들

과 협업을 페어망을 재활용해 나일론 섬유인 '마이판 리젠오션'을 만드는 페어망 리사이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포스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광양만권 자원순환 프로젝트'에 나서 광양만 지역의 페어망과 폐페트병을 '리젠' 섬유로 리사이클해 자원순환에 앞장서고 있다.

이 외에도 효성그룹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비롯해 탄소섬유 농산물 건조기, 태양광 발전기 등을 농어촌 지역에 기부하는 등 다양한 농어촌 상생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광주본부, 설 명절 직거래장터 개장 협의회 개최

2월 6~7일 큰 장터 운영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지난 18일 광주본부 3층 회의실에서 2024년 설 명절 직거래장터 개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이 날 협의회에는 광주지역 15개 단위 농·축협 판매사업 담당자들이 참여해 설 명절 직거래장터 품목선정과 운영계획 설정,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농협광주본부와 15개 지역 농·축협은 오는 2월 6일 광주지방검찰청, 2월 7일 농협광주본부 주차장에서 설 명절 큰 장터를 개장해 운영할 계획이며, 광주경찰청도 사전 예약주방식으로 명절 직거래장터에 동참할 예정이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장터를 통해 광주지역 15



개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들이 생산한 우수 농·축산물 등 직거래를 통해 시중가 보다 최고 10~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진청, 236억원 규모 연구개발과제 공모

기후대응 등 5개 사업

다음 달 14일까지 접수

농촌진흥청은 '2024년 농업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를 다음 달 14일까지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진청은 농업의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 가능한 농업에 기초한 연구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는 수출 전략형 신작물 보호제 기술 개발, 신농업 기후변화대응 체계 구축,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육종 기반 개발 등 5개 사업, 92개 과제로 나눠 실시한다. 이들 과제의 전체 연구비는 236억5100만원이다.

대학 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국립연구소, 지

방자치단체, 산업체 등 공공·민간기관 연구자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자세한 지원 절차와 공모 내용은 농촌진흥청 누리집이나 법무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참고하면 된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연구 역량과 기술력을 갖춘 대학과 지자체, 농업인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